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에 따른 의상디자인의 형태 연구

이 정 옥 · 권 미 정*

영남대학교 의류학과 · 밀양산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Style of Fashion Design by Expression of Erotic Mood

Jung-Ok Lee · Mee-Jung Kw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ungnam Univ.

Dept. of Clothing Design, Miryang National Univ.*

(1995. 9. 15 접수)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tyle of fashion design which represented three types of erotic mood. And it will have its significance in finding out some standards which can be applied to practical designing.

The positive analysis on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the analysis of fashion journals and of questionnaire. Analysis of fashion design is to seize and to compare frequency of 17 style of fashion design in the delivery of erotic mood in «Mot» and «Vogue». The questionnaire is to investigate preference and inclination of perception in erotic mood of 17 style of fashion design by sex and 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Vogue» than in «Mot» erotic style are actively made use of.
- 2) To suggest style of fashion design expressed 3 moods of erotic can be applied to practical designing is as follows.

Expression of 'romantic & mysterious' mood is desirable exposed body line in motion style in male, twenties and thirties.

Expression of 'seductive & stimulating' mood is desirable bosom exposure, leg exposure, adhere of bosom, adhere of waist, seen-through leg, slit, exposed body line in motion style in male and twenties and seen-through bosom, adhere of hip, slash style in male. This mood is desirable exposed body line motion style in thirties and forties.

Expression of 'sensuous & attractive' mood is desirable bosom exposure, leg exposure, adhere of bosom, adhere of waist, seen-through leg, slit, exposed body line in motion style in male and twenties and adhere of hip, seen-through bosom, slash style in male. And this mood is desirable adhere of waist, arm exposure style in female and adhere of waist, exposed body line in motion style in thirties and forties.

I. 서 론

성(性)은 시대, 문화,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성본능은 삶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무의식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본능은 자기표현의 욕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통해 승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사랑 즉 에로티시즘은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 깔려 있으며 신화, 관습, 예술 및 의상등에 표현되어진다.

오늘날, 사회적 규범과 틀이 자유로운 인간 감정을 억제하는 도가 그만큼 약해짐에 따라 보다 출직하게 자신의 내재된 성적욕구를 표현하게 되었다. 나타난 표현에 따라서 에로티시즘과 포르노그래피(춘화)로 구별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 본 연구자는 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색정적인 꾸밈새나 저질의 웃차림과는 달리 개인의 사상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한정하고 싶다.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대나 문화 혹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에로티시즘을 느끼는 민감성 정도는 개인의 미적능력과 관심, 성에 대한 시각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데서 에로티시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의상과 에로티시즘을 연관시킨 선행연구로는 채¹⁾, 이²⁾, 민³⁾, 박⁴⁾ Glynn⁵⁾ 그리고 Steel⁶⁾의 연구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우리 현실에 바탕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아니었다는 데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상형태에 따른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인지도를 조사하여 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 우리 정서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는 에로티시즘의 개념, 의상과 에로티시즘 그리고 의상형태에 따른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에로티시즘의 개념

에로티시즘의 어원은 성격사랑(性愛)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의 에로스(eros)로, 형용사 에로틱(erotic)에서 파생된 것이다. Platon은 에로스를 친리를 인식하려는

충동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에로티시즘을 육체적인 사랑 즉, 성애(性愛)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로티시즘에 관한 사전적 해석은 “성적인 만족을 위한 양식으로서 호색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그것을 고양(高揚)시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껏 에로티시즘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크게는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생식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심리적인 기반에서 발생하는 것⁷⁾이라는 견해와 성행위(생식행위)와 관계있는 심리적인 문제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현대에 있어 에로티시즘의 개념은 섹스로 귀결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에로티시즘이 개인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내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⁸⁾고 種村季弘이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로써 에로티시즘이 재평가되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의상과 에로티시즘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의식면과 의식면이라는 두 가지의 심리작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활동의 원천이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의식에 있으면서 이것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Freud는 밝혔다. 특히 그는 성(性)에너지라는 심리구조의 가장 일부분인 무의식계의 영역안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문명이 인간의 성적욕망을 누르니까 그 탈출구로서 예술이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성욕에 관한 Freud의 저서에 영향을 받은 Flügel은 의복착용의 동기는 두 가지 상반된 모순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는 정숙한 의복행동을 함으로써 에로티ك한 신체부위를 덮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정숙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노출시키려는 욕망의 양면성을 가지나 갈망은 정숙함이 목적 이 아니며 정숙함을 방파로 성적충동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 즉, 인간은 의복을 통해서 내재된 성적욕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것은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감정을 상징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 시대가 갖는 특성—너무 규제한다든지, 자유롭다든지—과 개인이 가진 본래의 성적욕망에 대해서 의복형태와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과거 고전주의와 모더니즘 혹은 18세기나 그 이전의 고딕시대에는 내적감정의 외부표출을

차단하는 의복을 많이 착용하였고 지금까지도 회교나 중동지역에는 여전히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의복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서 다양한 의상형태의 출현은 각양각색의 잠재된 욕구를 분출하려는 하나의 시도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규범이 현대에 들어서는 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 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적인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의복 행위에 있어서 누가 보아도 마땅한 하나의 아름다움—그것이 어느정도는 유행의 원동력이 된 것이지만—은 잠재된 인간본연의 욕구인 성적욕망(libido)의 발산 즉 에로티시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상형태에 따른 에로티시즘적 표현

에로티시즘을 나타낼 수 있는 의상형태는 직접적인 표현방법의 노출, 밀착, 슬래쉬, 슬릿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표현방법의 시-스루, 슬릿,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 등이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신체의 에로틱한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는 단시간에 시각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강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또한 훨씬 더 주의를 끌게 되며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은유나 암시, 연상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은 시작적인 인지에 그치지 않고 에로틱한 신체부위를 감지하여 형태를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일으켜 결국 성격연상에 이르게 됨으로써 에로틱한 느낌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간접적인 표현방법은 형태적인 면에서 오는 우아하고 안정적이며 정착된 이미지를 전달하며 넋만적이고 신비적이며 감성적이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전해주게 된다. 또한 은밀한 충격과 섬세한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1) 노출된 디자인

인간의 기본욕구에는 역할상태에서의 성에너지의 가벼운 발산과 마음깊이 숨어있는 노출욕구의 표현 등이 있다. 이러한 노출욕구는 의상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노출을 가장 손쉽게 의상으로 나타내었으며 오늘날은 노출의 극을 달해 전라의 상태에서 부분적인 바디페인팅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노출은 정숙한 개념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노출은 읊란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양면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공을 거두는 의상

디자인에서 많은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강조해 드러내기 때문이다¹¹⁾.

현대 여성들이 신체를 노출하는 현상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정신문명이 점점 쇠퇴해가기 때문이며 또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하고자하는 욕구에서 나온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¹²⁾.

2) 밀착된 디자인

여성의 인체에 밀착되는 의상은 나체를 연상하게 하며 남성에게서 볼 수 없는 여성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인체의 정확한 형태를 확실하게 드러내어 인체의 유연한 곡선을 쉽게 드러내 줌으로써 에로티시즘을 유발시키거나 나타내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과도한 신체적인 밀착에서 에로티시즘의 속성인 매저키즘(masochism: 피학대 음란증)을 엿볼 수 있으며 의상에서의 매저키즘의 경향은 좁은 허리띠, 벨트, 자켓, 바더스의 과도한 압박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압박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유도할 뿐 아니라 자유에의 욕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3) 비쳐보이는(see-through) 디자인

신체를 가리면서 동시에 인체의 굴곡을 드러내는 비쳐보이는 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유발시키며 감촉과 드러냄의 선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시-스루 룩은 누드 룩(nude look), 베어 룩(bare look)이라고도 부르는데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잘 나타내기 위해 오찬디와 같은 투명한 천으로 몸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이 방법은 고대부터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얇고 투명한 의상속에 건강한 신체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주며 또한 이 의상은 정적이며 막힘이 없으며 자유스러움을 준다. 의상에의 접촉은 육체의 접촉을 뜻하기도 하는데 비쳐보이는 옷과의 접촉은 환희감과 충만감을 경험하게 한다.

4) 트임이 있는(slash, slit) 디자인

슬래쉬와 슬릿은 틈이라 할 수 있다. 틈은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틈새로 드러난 피부는 선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정신분석학에서도 선정적인 옷은 틈새이다. 옷사이에서 반짝이는 피부, 에로틱한 부위가 살짝보이는 살의 틈새에서는 무한한 횡홀감과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된다.

틈은 일종의 훔쳐보기(voyerism)의 양태로 나타난

다¹⁴⁾. 옛본다는 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성적 쾌감을 갖는 행위여서 성적도착(性的的倒錯)으로 분류되고 있다. 타인의 육체나 성관계를 훔쳐보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은 정상적인 성인에게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이나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보이어리즘의 정도와 성적억압의 정도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여자들은 사회에서의 역할때문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슬래쉬와 슬릿은 숨김과 드러남의 변증법이 작용하는 곳이며 위반의 기호라 볼 수 있다. 다 드러나는 것보다는 살짝 틈을 통해 보여짐으로써 더욱 더 에로틱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5)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스타일은 고대 그리스 키튼에서 볼 수 있다. 길게 드레이퍼리된 주름 자락은 에로틱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며 신체의 굴곡으로 인해 선정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나른한 꿈의 세계로 존재를 인도하기도 한다. 신체가 감추어질수록 낭만적이고 신비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게 된다.

III. 연구방법

1. 용어설정

1) 의상형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5가지 형태(노출된 디자인, 밀착된 디자인, 비쳐보이는 디자인, 트임이 있는 디자인,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를 인체부위별로 17가지 형태로 나눈다.

2)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낭만·신비적 단계, 유혹·자극적 단계, 감성·매혹적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한다. 설문

문항에는 의상분위기를 감성·매혹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 무감각적 분위기, 거부적인 분위기, 혐오적인 분위기의 6가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S. Reznikoff(1983)¹⁵⁾의 에로틱 에너지의 변화 단계를 본 연구에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에로티시즘의 개념에 대한 조사 결과, 긍정적인 개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개념 또한 나타났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무감각적, 거부적, 혐오적인 분위기 항을 추가시켰다. 그리고 기타난을 두어 그 외의 응답일 경우 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Reznikoff에 의하면 에로틱 분위기에 따른 인간심리의 점증적 변화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3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초기단계로서 낮은 수준의 에로틱 에너지 단계인 낭만적 단계(romantic stage)는 에로틱으로부터 로맨틱을 분리해 내는 것으로써 에로스의 공공적(公共的)측면이 적절한 사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표현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에로틱 에너지의 증가와 함께 점차 흥미나 매력을 느끼는 단계로써 유혹적, 매혹적 단계(seductive stage)로 전이하며 최종적으로 감성적 단계(sensuous stage)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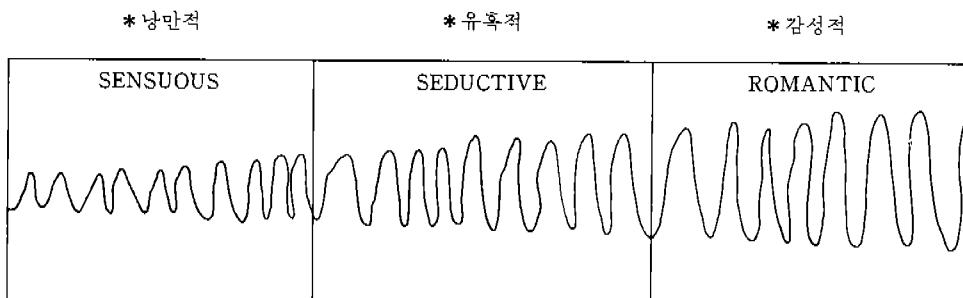
본 연구자가 조사한 에로티시즘의 개념에 대한 반응치를 빈도별로 20순위까지만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3) 신체선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의 형태 용어를 <표>에서는 간략하게 ‘신체선’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상잡지 분석과 설문조사의 2가지 분



[그림 1] Reznikoff의 에로틱 에너지 변화단계

<표 1> 에로티시즘의 개념
n=504(168명×3)

순위	에로티시즘 개념	빈도	비율(%)
1	야한	54	10.71
2	아름다운	40	7.94
3	본능적인	26	5.16
4	관능적인	24	4.76
5	성적 매력이 있는	18	3.57
6	유혹적인	17	3.37
7	매력적인	13	2.58
8	매혹적인	13	2.58
9	섹시한	13	2.58
10	색정적·선정적	12	2.38
11	은밀한	12	2.38
12	신비로운	11	2.18
13	부끄러운	8	1.59
14	부드러운	8	1.59
15	자극적인	8	1.59
16	육감적인	6	1.19
17	자연스러운	6	1.19
18	충동적인	6	1.19
19	환상적인	4	0.79
20	황홀한	4	0.79
합 계		303	60.12

석방법을 통하여 의상 형태와 에로티시즘적 표현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1) 의상잡지 분석

본 조사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의상형태를 중심으로 의상잡지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적 표현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에로티시즘적 표현 방법에 따른 허용도를 살펴보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발간되었던(1993. 3월이후 절판) 의상잡지인『멋』지와 미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대표적인 의상전문 잡지인『Vogue』지를 선정하여 빈도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멋』은 의상사진을 매월 일관성있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국내 유일의 의상잡지이므로 조사를 위해 이를 채택하였으며, 외국 잡지의 경우『멋』과 유사한 내용을 띠고 있으면서 비슷한 분량을 가진 잡지를 선택하여 했으나 월별로 빠지지 않고 모두 구비된 잡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보편적이면서도 구하기가 보다

용이한『Vogue』를 택하였다. 두 종의 잡지는 88년 이후부터 92년까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사계절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빈도 조사는 여성복에 준하여 색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 의상을 나타내고자 한 것, 의상 광고의 세 가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의 의상디자인 전문가 중 2명 이상이 의견 일치된 것만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 설문조사법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17가지 의상형태에 대한 선호도 및 에로티시즘적 분위기인지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성별·연령별에 따른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질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2문항, 17가지 의상형태에 따른 선호도 17문항과 의상분위기 17문항, 기타 1문항의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상형태에 관해서는 본 연구자가 국내·외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17가지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실물제시나 사진제시의 방법대신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의상형태와 의상 분위기에 대한 판단은 피험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게 하였다. 의상형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3$ 으로 나타났다. 의상형태에 따른 선호도는 5단계(매우선호, 조금선호, 보통, 조금거부, 매우거부)로 나누어 측정되었으며, 의상의 에로티시즘적 분위기는 6가지 분위기(감성·매혹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 무감각적 분위기, 거부적인 분위기, 혐오적인 분위기)로 나누고 기타난을 두어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설문조사에 응답한 피험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900명이 조사되었으나 이 중 응답의 성실성을 고려하여 유효표집으로 사용한 것은 578(남: 233, 여: 345, 20대: 227, 30대: 178, 40대: 173)명이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설문지 문항의 난해성 때문에 대체로 이해가 가능한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타당성을 위하여 20대는 대학교와 학원 등에서, 30대와 40대는 학교, 병원, 회사, 강연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고루 수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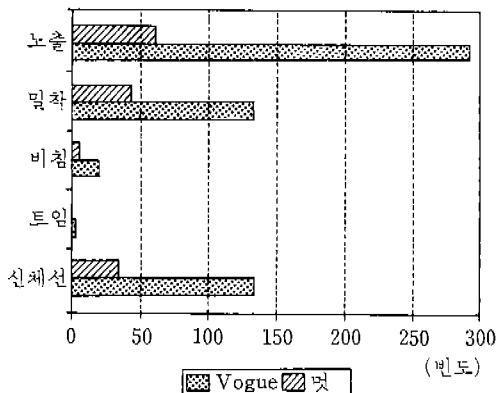
자료분석은 빈도와 퍼센트, χ^2 검증, 변량분석에 의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의상잡지 분석

의상형태가 나타나는 빈도를 『멋』과 『Vogue』에서 조사한 것 중 상·하의가 모두 노출, 밀착, 비침, 트임,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의 형태가 나타나는 빈도를 비교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의상형태의 노출, 밀착, 비침, 트임,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은 『멋』보다 『Vogue』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멋』에서는 노출, 밀착,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비침, 트임 순으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의상형태에 따른 경향분석 비교

2. 설문지 분석

1)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의 의상에 대한 인식도 '에로티시즘이 표현된 의상분위기'에 가장 가깝다고

<표 2> 에로티시즘적 표현의 의상분위기에 대한 인식도

N (%)

의상분위기 구분		감성·매혹적	유혹·자극적	낭만·신비적	무감각적	거부적	혐오적	합계	χ^2
성별	남	109(46.8)	67(28.8)	48(20.6)	5(2.1)	3(1.3)	1(0.4)	233(100)	
	여	161(46.7)	84(24.3)	87(25.2)	4(1.2)	9(2.6)	.	345(100)	5.823
연령	20대	120(52.8)	65(28.6)	42(18.5)	0(0.0)	0(0.0)	0(0.0)	227(100)	
	30대	80(44.9)	44(24.7)	44(24.7)	5(2.8)	4(2.3)	1(0.6)	178(100)	26.927**
	40대	70(40.5)	42(24.3)	49(28.3)	4(2.3)	8(4.6)	0(0.0)	173(100)	
합계		270(46.7)	151(26.1)	153(23.4)	9(1.6)	12(2.1)	1(0.2)	578(100)	

** p < .01

<표 3> 의상형태에 따른 선호도

M (SD)

형태		노출된디자인	밀착된디자인	비쳐보이는디자인	트임이있는디자인	움직임에따라신체선이드러나는디자인
성별	남	3.384(0.613)	3.246(0.847)	2.812(0.848)	3.032(0.894)	3.622(0.967)
	여	2.862(0.620)	2.449(0.752)	2.004(0.662)	2.551(0.902)	2.838(1.066)
F-Value		99.62***	140.90***	164.63***	39.90***	81.16***
연령	20대	3.254(0.641)	3.035(0.857)	2.547(0.880)	3.062(0.912)	3.551(1.005)
	30대	2.970(0.632)	2.645(0.842)	2.139(0.791)	2.475(0.820)	2.966(1.062)
F-Value	40대	2.939(0.688)	2.551(0.874)	2.241(0.778)	2.607(0.938)	2.827(1.091)
		14.58***	18.44***	13.70***	24.49***	27.50***

생각되는 의상분위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를 보면, 성별·연령별 모두 에로티시즘적 표현의 의상분위기에 대해 감성·매혹적 분위기(전체: 46.7%)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남성과 20대는 유혹·자극적 분위기와 낭만·신비적 분위기 순으로, 여성과 40대는 낭만·신비적 분위기와 유혹·자극적 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2) 의상형태에 따른 선호도

5가지 형태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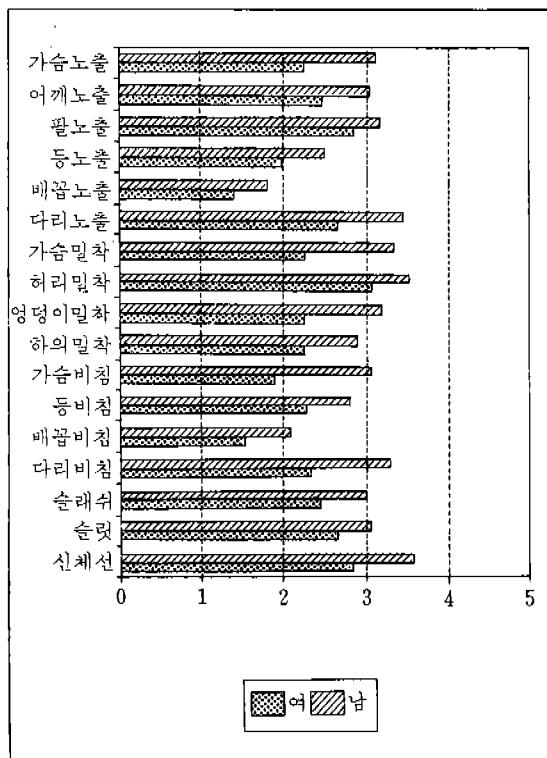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디자인 형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출된 디자인, 밀착된 디자인, 비쳐보이는 디자인, 트임이 있는 디자인,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의 형태를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홍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에

대해 연구한 Cahoon과 Edmonds¹⁶⁾의 연구결과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성적홍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동서양 모두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여성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경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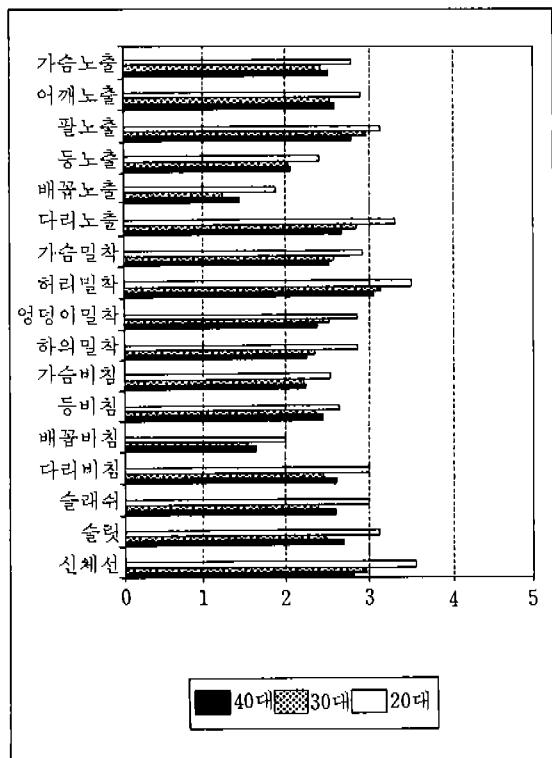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5가지 형태 모두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출된 디자인, 밀착된 디자인,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은 30대와 40대순으로, 비쳐보이는 디자인과 트임이 있는 디자인은 40대, 30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는 5가지 형태를 인체부위별로 17가지로 나누어 변량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성별로 보면 17가지 형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팔노출, 다리노출, 가슴밀착, 허리밀착, 영덩이밀착,



[그림 3] 성별에 따른 선호도



[그림 4] 연령별에 따른 선호도

<표 4> 성별·연령별에 따른 선호도

단위 : %

항 목	구분 선호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선호	보통	거부	선호	보통	거부	선호	보통	거부	선호	보통	거부	선호	보통	거부
형	가슴노출	40.8	26.6	32.7	16.8	18.3	65.0	33.0	20.7	46.2	20.8	22.5	56.8	23.7	22.0	54.3
	어깨노출	31.8	38.2	30.1	16.8	29.9	53.3	31.7	29.5	38.8	18.6	29.8	51.7	15.6	41.6	42.8
	팔 노 출	32.7	50.2	17.2	73.6	40.0	35.9	33.5	42.7	23.7	27.0	44.9	28.1	20.3	45.1	34.7
	등 노 출	16.7	25.3	58.0	9.3	13.0	77.7	17.2	19.4	63.4	10.7	14.0	75.2	7.5	20.2	72.3
	배꼽노출	9.4	9.0	81.6	2.6	7.0	90.5	11.4	11.5	77.1	·	3.4	96.7	2.9	7.5	89.6
	다리노출	507	29.2	20.2	20.5	32.5	46.9	45.0	30.8	24.2	26.9	30.9	42.2	22.6	31.8	45.7
	가슴밀착	43.8	37.3	18.9	10.4	25.5	64.0	31.8	28.2	40.1	16.9	35.4	47.8	20.8	27.7	51.4
	허리밀착	52.3	37.8	9.9	34.2	35.4	30.4	54.2	27.8	18.0	33.7	44.4	21.9	32.9	39.3	27.7
태	엉덩이밀착	41.7	28.8	29.6	8.7	28.7	62.6	29.1	30.4	40.6	20.2	29.8	50.0	14.5	25.4	60.2
	하의밀착	27.9	36.9	35.2	10.2	28.4	61.5	24.7	41.9	33.4	13.5	25.8	60.7	11.5	24.9	63.6
	가슴비침	38.2	27.0	34.8	6.4	16.2	77.4	25.2	17.2	57.7	18.0	20.2	61.8	12.7	25.4	61.8
	등 비 침	21.5	42.9	35.6	11.0	25.8	63.1	17.7	35.7	46.7	13.5	28.1	58.4	13.9	33.5	52.6
	배꼽비침	9.0	16.7	74.3	0.9	6.7	92.5	7.5	15.4	77.1	1.1	6.7	92.1	2.9	8.7	88.5
	다리비침	45.9	32.6	21.5	13.0	28.1	58.8	36.2	31.3	32.6	19.1	23.6	57.3	20.8	34.7	44.5
	슬 래 쉬	33.5	37.8	28.7	15.6	31.9	52.5	23.5	35.2	31.3	14.6	30.3	55.1	17.3	37.0	45.6
	슬 럿	32.6	41.2	26.1	20.2	35.1	44.7	34.4	38.8	26.9	13.5	41.0	45.5	25.5	32.4	42.2
	신 체 선	58.0	30.0	12.0	27.5	36.2	36.3	55.0	30.3	14.9	29.8	39.9	30.3	30.3	32.4	37.6

<표 5> 성별·연령별에 따른 선호값

구분 선호값	남	여	20대	30대	40대
70% 이상	·	팔노출	·	·	·
60%	·	·	·	·	·
50%	다리노출, 허리밀착, 신체선	·	허리밀착, 신체선	·	·
40%	가슴노출, 가슴밀착, 엉덩이밀착, 다리비침	·	다리노출	·	·
30%	어깨노출, 팔노출, 가슴비침, 슬래쉬, 슬릿	허리밀착	가슴노출, 어깨노출, 팔노출, 가슴밀착, 다리비침, 슬릿	허리밀착, 신체선	허리밀착, 신체선
20%	하의밀착, 등비침	다리노출, 슬릿, 신체선	엉덩이밀착, 하의밀착, 가슴비침, 슬래쉬	가슴노출, 팔노출, 다리노출, 엉덩이밀착, 신체선	가슴노출, 어깨노출, 팔노출, 다리노출, 가슴밀착, 다리비침, 슬릿
20% 미만	등노출, 배꼽노출, 배꼽비침	가슴노출, 어깨노출, 가슴밀착, 하의밀착, 등비침, 다리비침, 슬래쉬, 등노출, 배꼽노출, 엉덩이밀착, 가슴비침, 배꼽비침	등노출, 배꼽노출, 등비침, 배꼽비침	어깨노출, 등노출, 가슴밀착, 하의밀착, 가슴비침, 등비침, 다리비침, 슬래쉬, 슬릿, 배꼽노출, 배꼽비침	등노출, 엉덩이밀착, 하의밀착, 가슴비침, 등비침, 슬래쉬, 배꼽노출, 배꼽비침

<표 6> 노출된 형태에 따른 분위기 인지

N(%)

형태	의상분위기 구분		감성· 매혹적	유혹· 자극적	낭만· 신비적	무감각적	거부적	혐오적	기타	합계	χ^2
	성별	남여									
가슴노출	성별	남여	59(25.3)	80(34.3)	19(8.2)	23(9.9)	39(16.7)	11(4.7)	2(0.9)	233(100)	22.054***
			63(18.3)	124(35.9)	8(2.3)	34(9.9)	99(28.7)	15(4.3)	2(0.6)	345(100)	
	연령별	20대	50(22.0)	95(41.9)	12(5.3)	23(10.1)	39(17.2)	5(2.2)	3(1.3)	227(100)	
		30대	34(19.1)	57(32.0)	8(4.5)	14(7.9)	52(29.2)	12(6.7)	1(0.6)	178(100)	21.275***
		40대	38(22.0)	52(30.1)	7(4.0)	20(11.6)	47(27.2)	9(5.2)	·	173(100)	
	전체		122(21.1)	204(35.3)	27(4.7)	57(9.9)	138(23.9)	26(4.5)	4(0.7)	578(100)	
어깨노출	성별	남여	73(31.3)	36(15.5)	34(14.6)	58(24.9)	27(11.6)	4(1.7)	1(0.4)	233(100)	18.680***
			117(33.9)	61(17.7)	51(14.8)	47(13.6)	65(18.8)	1(0.3)	3(0.9)	345(100)	
	연령별	20대	90(39.6)	42(18.5)	36(15.9)	31(13.7)	26(11.5)	1(0.4)	1(0.4)	227(100)	
		30대	46(25.8)	40(22.5)	21(11.8)	31(17.4)	37(20.8)	2(1.1)	1(0.6)	178(100)	32.091***
		40대	54(31.2)	15(8.7)	28(16.2)	43(24.9)	29(16.8)	2(1.2)	2(1.2)	173(100)	
	전체		190(32.9)	97(16.8)	85(14.7)	105(18.2)	92(15.9)	5(0.9)	4(0.7)	578(100)	
팔노출	성별	남여	46(19.7)	27(11.6)	22(9.4)	116(49.8)	15(6.4)	3(1.3)	4(1.7)	233(100)	7.859
			76(22.0)	49(14.2)	32(9.3)	148(42.9)	36(10.4)	1(0.3)	3(0.9)	345(100)	
	연령별	20대	54(23.8)	32(14.1)	16(7.0)	105(46.3)	15(6.6)	1(0.4)	4(1.8)	227(100)	
		30대	42(23.6)	26(14.6)	15(8.4)	76(42.7)	16(9.0)	1(0.6)	2(1.1)	178(100)	15.331
		40대	26(15.0)	18(10.4)	23(13.3)	83(48.0)	20(11.6)	2(1.2)	1(0.6)	173(100)	
	전체		122(21.1)	76(13.1)	54(9.3)	264(45.7)	51(8.8)	4(0.7)	7(1.2)	578(100)	
등노출	성별	남여	28(12.0)	27(11.6)	31(13.3)	62(26.6)	68(29.2)	134(5.6)	4(1.7)	233(100)	59.079***
			58(16.8)	74(21.4)	47(13.6)	19(5.5)	112(32.5)	33(9.6)	2(0.6)	345(100)	
	연령별	20대	39(17.2)	49(21.6)	33(14.5)	30(13.2)	61(26.9)	12(5.3)	3(1.3)	227(100)	
		30대	16(9.0)	31(17.4)	27(15.2)	23(12.9)	66(37.1)	13(7.3)	2(1.1)	178(100)	23.491*
		40대	31(17.9)	21(12.1)	18(10.4)	28(16.2)	53(30.6)	21(12.1)	1(0.6)	173(100)	
	전체		86(14.9)	101(17.5)	78(13.5)	81(14.0)	180(31.1)	46(8.0)	6(1.0)	578(100)	
배꼽노출	성별	남여	15(6.4)	34(14.6)	10(4.3)	25(10.7)	91(39.1)	57(24.5)	1(0.4)	233(100)	18.578**
			14(4.1)	53(15.4)	7(2.0)	16(4.6)	126(36.5)	128(37.1)	1(0.3)	345(100)	
	연령별	20대	20(8.8)	48(21.1)	13(5.7)	13(5.7)	81(35.7)	50(22.0)	2(0.9)	227(100)	
		30대	5(2.8)	14(7.9)	1(0.6)	13(7.3)	67(37.6)	78(43.8)	·	178(100)	52.429***
		40대	4(2.3)	25(14.5)	3(1.7)	15(8.7)	69(39.9)	57(32.9)	·	173(100)	
	전체		29(5.0)	87(15.1)	17(2.9)	41(7.1)	217(37.5)	185(32.0)	2(0.3)	578(100)	
다리노출	성별	남여	61(26.2)	91(39.0)	21(9.0)	26(11.2)	24(10.3)	6(2.6)	4(1.7)	233(100)	32.341***
			73(21.2)	90(26.0)	22(6.4)	54(15.7)	94(27.2)	6(1.7)	6(1.7)	345(100)	
	연령별	20대	59(26.0)	88(38.8)	12(5.3)	32(14.1)	28(12.3)	3(1.3)	5(2.2)	227(100)	
		30대	37(20.8)	62(34.8)	10(5.6)	17(9.6)	46(25.8)	3(1.7)	3(1.7)	178(100)	42.721***
		40대	38(22.0)	31(17.9)	21(12.1)	31(17.9)	44(25.4)	6(3.5)	2(1.2)	173(100)	
	전체		134(23.2)	181(31.3)	43(7.4)	80(13.8)	118(20.4)	12(2.1)	10(1.7)	578(100)	

* p < .05 ** p < .01 *** p < .001

하의 밀착,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머지 10가지 형태는 20대, 40대, 30대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와 40대 보다는 20대 연령층에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의상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17가지 형태에 따른 선호도를 Likert type (매우선호, 조금선호, 보통, 조금거부, 매우거부)으로 측정한 결과를 매우선호와 조금선호를 선호로, 조금거부와 매우거부를 거부로 묶어서 성별·연령별로 선호,

보통, 거부의 3단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5>는 <표 4> 중 선호값단을 다시 나타낸 것이다.

3) 의상형태에 따른 분위기 인지

의상의 형태를 크게 5가지 디자인으로 나누고 인체부위별로 모두 17가지로 나누어 그에 따른 분위기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1) 노출된 디자인

6가지의 노출된 디자인 형태에 대한 분위기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슴노출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유혹·자극

<표 7> 밀착된 형태에 따른 분위기 인지

N (%)

형태	의상분위기 구분		감성·매혹적	유혹·자극적	낭만·신비적	루감각적	거부적	혐오적	기타	합계	χ^2
	성별	남여									
가슴밀착	성별	남여	65(27.9)	88(37.8)	17(7.3)	33(14.2)	25(10.7)	4(1.7)	1(0.4)	233(100)	42.215***
			66(18.8)	103(29.9)	16(4.6)	36(10.4)	99(28.7)	22(6.4)	4(1.2)	345(100)	
	연령별	20대	49(21.6)	99(43.6)	9(4.0)	21(9.3)	36(15.8)	10(4.4)	3(1.3)	227(100)	32.006**
		30대	44(24.7)	48(27.0)	15(8.4)	19(10.7)	45(25.3)	7(3.9)	-	178(100)	
		40대	37(21.4)	44(25.4)	9(5.2)	29(16.8)	43(24.9)	9(5.2)	2(1.2)	173(100)	
	전체		130(22.5)	191(33.0)	33(5.7)	69(11.9)	124(21.5)	26(4.5)	5(0.9)	578(100)	
허리밀착	성별	남여	83(35.6)	53(22.7)	35(15.0)	45(19.3)	12(5.2)	3(1.3)	2(0.9)	233(100)	16.131*
			116(33.6)	62(18.0)	42(12.2)	61(17.7)	52(15.1)	6(1.7)	6(1.7)	345(100)	
	연령별	20대	88(38.8)	52(22.9)	27(11.9)	38(16.7)	17(7.5)	3(1.3)	2(0.9)	227(100)	17.021*
		30대	50(28.1)	35(19.7)	31(17.4)	31(17.4)	25(14.0)	4(2.2)	2(1.1)	178(100)	
		40대	61(35.3)	28(16.2)	19(11.0)	37(21.4)	22(12.7)	2(1.2)	4(2.3)	173(100)	
	전체		199(34.4)	115(19.9)	77(13.3)	106(18.3)	64(11.1)	9(1.6)	8(1.4)	578(100)	
엉덩이밀착	성별	남여	48(20.7)	92(39.2)	18(7.8)	37(15.9)	28(12.1)	7(3.0)	3(1.3)	233(100)	35.493***
			36(10.5)	113(32.6)	16(4.7)	57(16.6)	94(27.3)	27(7.8)	2(0.6)	345(100)	
	연령별	20대	31(13.7)	109(47.6)	15(6.6)	31(13.7)	30(13.2)	9(4.0)	3(1.3)	228(100)	36.639***
		30대	32(18.2)	49(27.3)	11(6.2)	29(16.5)	43(24.4)	12(6.8)	1(0.6)	177(100)	
		40대	21(12.1)	47(27.2)	8(4.6)	34(19.7)	49(28.3)	13(7.5)	1(0.6)	173(100)	
	전체		84(14.6)	205(35.2)	34(5.9)	94(16.3)	122(21.2)	34(5.9)	5(0.9)	578(100)	
하의밀착	성별	남여	44(18.9)	63(27.0)	18(7.7)	61(26.2)	38(16.3)	7(3.0)	2(0.9)	233(100)	30.297***
			44(12.8)	70(20.3)	15(4.3)	72(20.9)	118(34.2)	21(6.1)	5(1.4)	345(100)	
	연령별	20대	45(19.8)	68(30.0)	9(4.0)	58(25.6)	36(16.7)	6(2.6)	3(1.3)	227(100)	49.521***
		30대	20(11.2)	44(24.7)	8(4.5)	35(19.7)	54(30.3)	15(8.4)	2(1.1)	178(100)	
		40대	23(13.3)	21(12.1)	16(9.2)	40(23.1)	64(37.0)	7(4.0)	2(1.2)	173(100)	
	전체		88(15.2)	133(23.0)	33(5.7)	133(23.0)	156(27.0)	28(4.8)	7(1.2)	578(100)	

* p < .05 ** p < .01 *** p < .001

적 분위기(전체 35.3%)로 느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감성·매혹적 분위기 또는 거부적인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깨노출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감성·매혹적 분위기(전체 : 32.9%)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혹·자극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 무감각적 분위기, 거부적인 분위기를 고루 느끼고 있었다.

팔노출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무감각적 분위기(전체 : 45.7%)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성·매혹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등노출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거부적 분위기(전체 : 31.1%)로 느끼고 있었으며 감성·매혹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 무감각적 분위기를 고루 느끼고 있었다.

배꼽노출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거부적인 분위기와 혐오적인 분위기(전체 : 69.5%)가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유혹·자극적 분위기로 느끼고 있었다. ·

다리노출에 대해서는 남성과 20대, 30대는 유혹·자극적 분위기로, 여성과 40대는 거부적인 분위기로 인지

<표 8> 비쳐보이는 형태에 따른 분위기 인지

N (%)

의상분위기 구분		감성·매혹적	유혹·자극적	낭만·신비적	무감각적	거부적	혐오적	기타	합계	χ^2	
감 습 비 침	성별	남 여	47(20.2) 52(15.1)	86(36.9) 72(20.9)	34(14.6) 41(11.9)	21(9.0) 13(3.8)	35(15.0) 109(31.6)	8(3.4) 58(16.8)	2(0.9) ·	233(100) 345(100)	62.583***
	연령별	20대 30대 40대	36(15.9) 27(15.2) 36(20.8)	84(37.0) 40(22.5) 34(19.7)	29(12.8) 25(14.0) 271(12.1)	14(6.2) 8(4.5) 12(6.9)	42(18.5) 56(31.5) 46(26.6)	21(9.3) 21(11.8) 24(13.9)	1(0.4) 1(0.6) ·	227(100) 178(100) 173(100)	29.987*
	전체		99(17.1)	158(27.3)	75(13.0)	34(5.9)	144(24.9)	66(11.4)	2(0.3)	578(100)	
	성별	남 여	36(15.5) 76(22.0)	24(10.3) 33(9.6)	36(15.5) 69(20.0)	85(36.5) 42(12.2)	37(15.9) 104(30.1)	10(4.3) 18(5.2)	5(2.1) 3(0.9)	233(100) 345(100)	55.647***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7(25.1) 23(12.9) 32(18.5)	26(11.5) 21(11.8) 10(5.8)	40(17.6) 35(19.7) 30(17.3)	47(20.7) 42(23.6) 38(22.0)	47(20.7) 48(27.0) 46(26.6)	6(2.6) 6(3.4) 16(9.2)	4(1.8) 3(1.7) 1(0.6)	227(100) 178(100) 173(100)	25.881*
	전체		112(19.4)	57(9.9)	105(18.2)	127(22.0)	141(24.4)	28(4.8)	8(1.4)	578(100)	
등 비 침	성별	남 여	14(6.0) 15(4.3)	31(13.3) 43(12.5)	18(7.7) 16(4.6)	43(18.5) 28(8.1)	88(87.8) 146(42.3)	37(15.9) 92(26.7)	2(0.9) 5(1.4)	233(100) 345(100)	23.561***
	연령별	20대 30대 40대	21(9.3) 2(1.1) 6(3.5)	36(15.9) 16(9.0) 22(12.7)	19(8.4) 6(3.4) 9(5.2)	29(12.8) 24(13.5) 18(10.4)	83(36.6) 79(44.4) 72(41.6)	36(15.9) 49(27.5) 44(25.4)	3(1.3) 2(1.1) 2(1.2)	227(100) 176(100) 173(100)	31.963***
	전체		29(5.0)	74(12.8)	34(5.9)	71(12.3)	234(40.5)	129(22.3)	7(1.2)	578(100)	
	성별	남 여	68(29.3) 71(20.6)	58(25.0) 60(17.4)	41(17.2) 65(18.6)	30(12.9) 37(10.8)	28(12.1) 92(26.7)	4(1.7) 20(5.8)	4(1.7) ·	233(100) 345(100)	34.703***
	연령별	20대 30대 40대	66(29.1) 37(20.9) 36(20.9)	57(25.1) 36(20.3) 25(14.5)	43(18.5) 28(15.8) 35(19.8)	22(9.7) 19(10.7) 26(15.1)	37(16.3) 47(26.6) 36(20.9)	2(0.9) 7(4.0) 15(8.7)	1(0.4) 3(1.7) ·	228(100) 177(100) 173(100)	36.024***
	전체		139(24.1)	118(20.5)	106(18.1)	67(11.6)	120(20.8)	24(4.2)	4(0.7)	578(100)	

* p < .05 *** p < .001

하고 있었다.

(2) 밀착된 디자인

4가지의 밀착된 디자인 형태에 대한 분위기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슴밀착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유혹·자극적 분위기(전체 : 3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성과 20대는 감성·매혹적 분위기가, 여성과 30대, 40대는 거부적 분위기가 높게 나타났다.

허리밀착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감성·매혹적 분위기(전체 : 34.4%)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혹·자극적 분위기 또는 무감각적 분위기로 나타났다.

엉덩이밀착에 대해서는 남녀와 20대, 30대는 유혹·자극적 분위기가, 40대는 거부적 분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의밀착에 대해서는 남성과 20대는 유혹·자극적 분위기로, 여성과 30대, 40대는 거부적 분위기로 인식하

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비쳐보이는 디자인

4가지의 비쳐보이는 디자인 형태에 대한 분위기 인지도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슴비침에 대해서는 남성과 20대는 유혹·자극적 분위기로, 여성과 30대, 40대는 거부적 분위기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비침에 대해서는 남성은 무감각적으로, 20대는 감성·매혹적으로, 여성과 30대, 40대는 거부적인 분위기로 느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거부적 분위기, 무감각적 분위기, 감성·매혹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배꼽비침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모두 거부적 분위기(전체 : 40.5%)로 인지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다리비침에 대해서는 남성과 20대는 감성·매혹적 분위기, 여성과 30대는 거부적 분위기, 40대는 같은 비율

<표 9> 트임이 있는 형태와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에 따른 분위기 인지

N(%)

의상분위기 구분		감성· 매혹적	유혹· 자극적	낭만· 신비적	무감각적	거부적	혐오적	기타	합계	χ^2	
슬래쉬	성별	남	63(27.0)	49(21.0)	37(15.9)	34(14.6)	40(17.2)	8(3.4)	2(0.9)	233(100)	29.834***
		여	51(14.8)	79(22.9)	29(8.4)	58(16.8)	98(28.4)	27(7.8)	3(0.9)	345(100)	
	연령별	20대	52(22.9)	64(28.2)	30(13.2)	39(17.2)	32(14.1)	8(3.5)	2(0.9)	227(100)	36.314***
		30대	24(13.5)	33(18.5)	20(11.2)	25(14.0)	62(34.8)	12(6.7)	2(1.1)	178(100)	
		40대	38(22.0)	31(17.9)	16(9.2)	28(16.2)	44(25.4)	15(8.7)	1(0.6)	173(100)	
	전체		114(19.7)	128(22.1)	66(11.4)	92(15.9)	138(23.9)	35(6.1)	5(0.9)	578(100)	
슬릿	성별	남	66(28.3)	50(21.5)	31(13.7)	48(20.6)	27(11)	5(2.1)	5(2.1)	233(100)	17.538***
		여	110(31.9)	58(16.8)	52(15.1)	46(13.3)	69(20.0)	9(2.6)	1(0.3)	345(100)	
	연령별	20대	89(39.2)	49(21.6)	31(13.7)	29(12.8)	24(10.6)	1(0.4)	4(1.8)	227(100)	35.317***
		30대	38(21.3)	33(18.5)	27(15.2)	33(18.5)	40(22.5)	5(2.8)	2(1.1)	178(100)	
		40대	49(28.3)	26(15.0)	26(15.0)	32(18.5)	32(18.5)	8(4.6)	-	173(100)	
	전체		176(30.4)	108(18.7)	84(14.5)	94(16.3)	96(16.6)	14(2.4)	6(1.0)	578(100)	
신체선	성별	남	76(32.6)	61(26.2)	47(20.2)	21(9.0)	20(8.6)	8(3.4)	-	233(100)	14.997*
		여	95(27.3)	67(19.5)	71(20.6)	37(10.8)	58(16.9)	12(3.5)	5(1.5)	345(100)	
	연령별	20대	81(35.4)	55(24.3)	49(21.7)	20(8.8)	20(8.8)	2(0.9)	-	227(100)	33.393***
		30대	42(23.6)	36(20.2)	41(23.0)	16(9.0)	35(19.7)	7(3.9)	1(0.6)	178(100)	
		40대	48(27.7)	37(21.4)	28(16.2)	22(12.7)	23(13.3)	11(6.4)	4(2.3)	173(100)	
전체			171(29.5)	128(22.2)	118(20.5)	58(10.1)	78(13.5)	20(3.5)	5(0.9)	578(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에 따른 형태디자인의 적용기법(성별·연령별)

의상분위기 구분 %	낭만·신비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감성·매혹적 분위기		
	49~40	39~30	29~20	49~40	39~30	29~20	49~40	39~30	29~20
남						하의밀착			
여			동비침 신체선		가슴노출 영덩이밀착	등노출 다리노출 가슴밀착 가슴비침 하의밀착 슬래쉬	어깨노출 슬릿		팔노출 다리노출 등비침 다리비침 신체선
20대				영덩이밀착	하의밀착 가슴비침	등노출 배꼽노출 슬래쉬			가슴노출 팔노출 가슴밀착 다리노출 다리비침 등비침 슬래쉬
30대					가슴노출 다리노출	어깨노출 가슴밀착 영덩이밀착 가슴비침 하의밀착 다리비침			어깨노출 팔노출 다리노출 가슴밀착 하의밀착 다리비침 슬릿 신체선
40대					가슴노출	가슴밀착 영덩이밀착	어깨노출		가슴노출 다리노출 가슴밀착 가슴비침 다리비침 슬래쉬 슬릿 신체선

신체선 :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 평균자의 30% 이상의 선호도

로 감성·매혹적 분위기와 거부적 분위기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감성·매혹적 분위기, 거부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4) 트임이 있는 디자인

슬리쉬와 슬릿의 형태에 대한 분위기 인지도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슬리쉬에 있어서는 남성은 감성·매혹적 분위기로, 여성과 30대, 40대는 거부적 분위기로 그리고 20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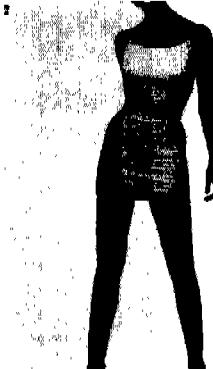
유혹·자극적 분위기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슬릿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20대와 40대는 감성·매혹적 분위기로, 30대는 거부적 분위기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감성·매혹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거부적 분위기, 무감각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5)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

<표 9>는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에

<표 11>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에 따른 형태디자인의 적용실태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	유혹·자극적 분위기	감성·매혹적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20대,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20대 
형태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20대, 30대 : 신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20대 : 다리노출, 가슴 밀착, 허리밀착 ● 30대, 40대 : 신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20대 : 어깨노출, 팔노출, 허리밀착, 신체선 ● 여성, 30대, 40대 : 허리밀착, 신체선

대한 분위기 인지도의 결과로, 성별·연령별 모두 감성·매혹적 분위기(전체: 29.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혹·자극적 분위기 또는 낭만·신비적 분위기로 느끼고 있었다.

이상의 17가지 의상형태에 따른 분위기 인지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 10>에 성별·연령별로 나타내고 그 위에 앞에서 조사되었던 각 의상형태에 대한 선호하는 정도가 30% 이상인 것을 ■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선호하는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을 위한 의상의 형태를 디자인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11>은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을 위한 형태디자인 적용의 한 실례이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의상의 17가지 형태에 따른 선호도 및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인지 경향을 파악하여 의상 디자인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상잡지 분석과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먼저 의상잡지 분석은 『멋』지와 『vogue』지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이 표현된 의상형태의 빈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법은 17가지 의상형태에서 느껴지는 에로티시즘적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20세에서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로 조사·분석하였다.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측정의 근거는 S. Reznikoff의 에로틱 에너지의 변화단계—낭만적 단계, 유혹적 단계, 감성적 단계—와 본 연구자가 에로티시즘의 개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누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두 잡지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멋』지 보다는 『Vogue』지에서 에로티시즘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멋』에서는 『Vogue』와는 달리 노출과 밀착의 정도가 경미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소속적 표현 양상을 보였다.

2. 조사 분석된 17가지 형태디자인에 따른 선호도 및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인지 성향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의상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에 따라서 성별·연령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낭만·신비적인 분위기 표현: 남성과 20대, 30대에게는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호하는 디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유혹·자극적인 분위기 표현: 남성과 20대에게는 가슴노출, 다리노출, 가슴밀착, 허리밀착, 다리비침, 슬릿,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가 또한 가슴비침, 엉덩이밀착, 슬래쉬의 형태가 남성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에게는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로 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3) 감성·매혹적인 분위기 표현: 남성과 20대는 가슴노출, 다리노출, 가슴밀착, 허리밀착, 다리비침, 슬릿,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가 또한 남성에게 엉덩이 밀착, 가슴비침, 슬래쉬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는 허리밀착, 팔노출의 형태가, 30대와 40대는 허리밀착과 움직임에 따라 신체선이 드러나는 형태를 응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로티시즘적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변인 중에서 의상형태의 변인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피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성을 갖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정되어지는 다양한 변인들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통계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가 행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채영애,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2) 이미원, “의상의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Slash 의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3) 민미홍,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의상디자인 연구 -투시기법을 응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4) 박희숙, “패션에 나타난 팝(Pop) 사조 중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5) Glynn, Prudence, *Skin to Skin: Eroticism in Dress* (New York: Oxford Univ., 1982).
- 6) Steele, Valerie,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 Age*(New York: Oxford Univ, 1985).
- 7) *Grand Larousse Encyclopédique*(Paris: Librairie Larousse, 1961).
- 8)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세계대백과사전』, 20권(서울: 동아출판사, 1983), p. 397.
- 9) 種村李弘, 『エロティシズムの世界意志一性の思想』(東京: 太平出版社, 1977), p. 40.
- 10) Rosencranz, Mary Lou, *Clothing Concepts*(London: Collier-Macmillan Limited, 1972), p. 185에서 재인용.
- 11) Oraison, Marc, *Sexuality*, 『성』 정홍규 옮김(대구: 이문출판사, 1985).
- 12) 김미정, “현대여성복식의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60.
- 13) Rosencranz, *op. cit.*, p. 202.
- 14) 김연권, “플로베르에 있어서의 에로스와 죽음”,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p. 27-31참조.
- 15) Reznikoff, Sivon, *Sensuous Spaces*(Whitney Library of Design, 1983), p. 15.
- 16) Cahoon, D.D. & Edmonds, M., Estimates of Opposite 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 Clothing Sty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5, 1987), p. 406.